

HEADLINE NEWS

청소년에게 기술 습득과 동시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오스틴)

미국 오스틴의 'Youthbuild Austin'은 16세부터 24세까지의 미취업, 저학력 청소년들에게 기술 습득과 동시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비슷한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 인정시험)을 준비하면서, 홈리스와 저소득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만드는 건축기술을 배우게 된다. 기본적인 건축기술부터 최신 기술까지 배울 수 있으며, 직업준비, 리더십 훈련은 물론, 경력지원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국립건축교육연구센터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Youthbuild Austin'의 목표는 교육, 건축기술, 직업 개발을 통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미국 주택도시 개발국(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오스틴 보건복지과 가족 청소년팀에서 운영하고 있다.

(www.ci.austin.tx.us/news/2005/youthbuild_2005.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해 도심재개발 추진방안 마련 (런던)
- ②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센터 급증 (미국)
- ③ 춘절기간 동안 '빛의 터널' 조명장식 설치 (타이베이)

도시환경

- ④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 추진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 병행 (런던)
- ⑤ 내부도시에 루프 (Loop) 형태의 녹색길 조성 추진 (애틀랜타)
- ⑥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승인 (자카르타)

도시교통

- ⑦ 교통카드로 택시 및 주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추진 (타이베이)
- ⑧ 기존 유료도로에 가변통행료 부과 추진 (덴버市)
- ⑨ 실시간 교통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미국)

사회복지·문화

- ⑩ "시민의 건강 위해 도시계획과정에 보건 의료 항목 추가해야" (런던)
- ⑪ 쇼핑센터에 공공도서관 전자분관 (e-Branch)개관 (오스틴)

행·재정

- ⑫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센터 개관 (덴버市)
- ⑬ 소기업의 인터넷 활용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오스틴)

①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해 도심재개발 추진방안 마련 (런던)

영국 런던의 ICS(Institute of Community Studies)는 도시의 인구관리와 관련해 성공적인 도시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의 중간영역과 외곽영역을 재개발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ICS는 도시의 인구감소, 탈산업화 그리고 도시 공동화를 경험한 영국의 맨체스터(Manchester)와 독일의 라이프치히(Leipzig)를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의 재개발과 지역소재 대학의 지명도 제고를 통해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젊은 층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뒤에도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anning, 2005. 1. 28, "Shrinking to Grow")

②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센터' 급증 (미국)

쇼핑과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센터(lifestyle centers)'가 인기를 얻고 있다. 월마트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빅박스(Big Box)나 지역쇼핑센터의 개발이 줄어든 대신, 여러 종류의 소규모 부티크(boutique)들과 서점, 고급 레스토랑, 헬스클럽, 실내외 휴식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라이프스타일센터'가 미국 전역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쇼핑센터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30개 정도이던 '라이프스타일센터'가 2004년에는 120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oney.cnn.com/2005/01/11/news/fortune500/retail_lifestylecenter/index.htm)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춘절기간 동안 ‘빛의 터널’ 조명장식 설치 (타이베이)

대만의 타이베이 市당국은 긴 춘절기간(The Lunar New Year vacation) 동안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내의 Renai Road(仁愛路)에 ‘빛의 터널(Tunnel of Lights)’이라는 조명장식을 설치하였다. 2005년 2월 11일부터 2월 말까지 설치·운영되는 이 조명장식은 ‘시간의 강’이라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타이베이의 역사, 중국전설의 특징, 현대경제의 전개과정, 환경보호, ‘Sunshine Dancers’라는 빛의 조각품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市당국은 이 장식물의 설치로 인해 시민들이 景福門에서 시청까지 도보산책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긴 춘절기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등 집안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곤 한다. 市당국은 이번 조명장식을 통해 밝고 활기찬 타이베이를 연출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건강한 휴가기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taipeitimes.com/News/feat/archives/2005/02/04/2003222242)

④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 추진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 병행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주택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중인 ‘커뮤니티 플랜(Communities Plan)’의 일환으로 템스 게이트웨이 지역(Thames Gateway Area) 개발계획이 한창이다. 개발계획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차와 사람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병행하여 ‘그린 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와 계획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선형공원과 자전거 통로, 산책길, 레저시설과 주변공간들이 녹지 공공공간 및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도시의 과밀화를 막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도시 개발에 있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듦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Planning, 2005. 1. 28)

5 내부도시에 루프(Loop) 형태의 녹색길 조성 추진 (애틀랜타)

미국 조지아州的 애틀랜타는 내부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공원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루프(Loop) 형태로 연결하는 '에메랄드 목걸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공원뿐만 아니라 버려진 땅이나 공장이전 적지 등을 생태 복원하여 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면적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합쳐서 10.3km²에 이르며, 길이는 35km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들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며, 애틀랜타市的 22개 근린지역이 산책로인 녹색길로 연결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은 19세기 공원계획의 개척자인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에 의해 계획된 보스톤市的 공원시스템에 있다. 북캐롤라이나州的 랄리히(Laleigh)市와 워싱턴州的 시애틀市에서도 공원을 연결하는 녹색길 사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www.csmonitor.com/2005/0127/p03s01-ussc.html)

6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승인 (자카르타)

방콕,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市の회는 최근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조례를 승인하였다. 이 조례는 市당국에 조례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06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市당국은 시민들에게 조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고 부수적인 하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개인 승용차의 매연배출량을 측정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공인 자동차정비공장의 수를 늘리는 것도 이 기간 중에 해야 할 일이다. 현재 市에는 48개의 공인 자동차정비공장이 있으나, 市の 450만대 자동차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모든 차량은 정기적인 매연배출량 측정을 받아야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미화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 조례에 의해 市당국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오염의 정도에 따라 5단계의 급보(急報)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www.thejakartapost.com/detailcity.asp?fileid=20050203.G02&iirec=1)

7] 교통카드로 택시 및 주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추진 (타이베이)

대만의 타이베이 市당국은 기존의 교통카드를 대중교통요금뿐만 아니라 택시 및 주차요금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관계당국과 택시 조합은 2005년 3월부터 6개월간 약 300대의 택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택시 조합 관계자는 택시 요금을 교통카드로 처리하면 승객 및 택시업자 모두에게 시간절감 편익이 발생하고, 잔돈 부족 등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통카드로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로 한 구간의 노상주차 구역에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센서를 설치하여 2005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러한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 말까지 시내 곳곳에 주차요금을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2,000여개의 센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 市의 교통카드는 2002년에 도입되어 현재 약 5백만 장 가량이 사용 중이다.

(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05/01/25/2003220919)

8] 기존 유료도로에 가변통행료 부과 추진 (덴버 市)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 市에서는 기존 유료도로의 고정요금체계를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가변요금체제로 바꾸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덴버 市 동쪽 외곽 순환도로인 E-470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현재 시행가능성을 재정 및 교통류 관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2005년 여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통행료시스템의 정기권 이용자를 위한 할인혜택 부과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진행 중이다. 검토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2006년 초에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금체계의 도입을 통해 혼잡완화 효과 및 재정수입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E-470 도로는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의 교통량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www.denverpost.com/Stories/0,1413,36~53~2689026,00.html#)

9] 실시간 교통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미국)

정보검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야후(Yahoo)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후는 기존의 지도 서비스에 인터넷 기반 교통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평균속도와 교통혼잡 상태를 인터넷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간 자동차 속도 정보는 20개 주요 대도시권에 한해 우선 이용가능하고, 교통사고나 도로의 유지보수 현황은 70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야후는 이러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장비에도 곧 서비스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이와 유사한 교통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 중인 州도 있다. 조지아州 교통국은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애틀랜타 대도시권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조지아 네비게이터(Georgia-Navigator)’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애틀랜타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 상황, 공사구간, 사고지점뿐만 아니라 영상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영상정보는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올라오는 자료를 스틸사진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매 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이 시스템은 또한 이용자들이 주요 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ITS 교통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www.reuters.com/newsArticle.jhtml?type=internetNews&storyID=7108718)

(www.georgia-navigator.com)

④ “시민의 건강 위해 도시계획과정에 보건의료항목 추가해야”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보건의료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계획과정에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제안은 2016년까지 80만 명의 인구 증가, 63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23,000개의 주택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가와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도시의 인구 팽창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복지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35%의 도시계획가들이 계획과정에서 보건医료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했고, 나머지 65%의 계획가들도 계획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조항이라고 답변하였다.

(Planning, 2005. 1. 21)

④ 쇼핑센터에 공공도서관 전자분관(e-Branch) 개관 (오스틴)

미국 오스틴에 있는 오스틴공공도서관의 전자분관(e-Branch)이 2005년 1월 15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쇼핑센터(Highland Mall) 1층에 설치된 키오스크 전자분관은 텍사스에 최초로 만들어진 전자도서관으로, 시민들은 이 전자분관을 통해 신속하게 도서관의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분관에서는 오스틴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인 및 예약, 도서관 참고서비스, 일자리 찾기, 실시간 뉴스와 날씨정보, 인쇄 및 팩스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전자분관 설립은 3M 회사의 협력으로 가능하였다. 오스틴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John Henry Faulk Central Library), 20개의 분관도서관, 오스틴역 사센터, 전자분관 등 총 23개의 시설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www.ci.austin.tx.us/library/news/nr20050115.htm)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해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센터 개관 (덴버市)

미국 덴버市 기업지원센터가 지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의 협력으로 개관하였다. 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법·제도적 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등록, 인·허가, 세금관련 정보, 그리고 다양한 규제들을 안내·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관련 컨설팅, 마케팅, 자금지원 정보제공 등 경영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지원도 하게 된다.

(www.denvergov.org/newsarticle.asp?id=8214)

소기업의 인터넷 활용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 ‘소기업개발프로그램’에서는 소기업의 인터넷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법률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현명한 구매방법: 이베이(e-Bay)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사이버안전: 당신의 사업을 전자상거래 사기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강좌이다.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현명한 구매방법’ 강좌에서는 이베이(e-Bay) 계정을 만드는 방법과 사무용품 구입에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사이버안전’ 강좌에서는 구매가 잘못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판매지침, 인터넷사기와 이해관계 등을 다룬다. ‘소기업개발프로그램’은 소기업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기업의 경영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www.ci.austin.tx.us/news/2005/smallbiz_web.htm)